

“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

■ 이종윤 원로목사

성도가 어떻게 대담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토록 많은 위험과 위협을 겪으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온한 마음을 갖고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을 탄복과 기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바울은 우리를 근심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그는 시간의 그림자를 앞질러 가고 영원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산 사람이다. 그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을 강하고 굳세며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든 깊고 즐거운 평안을 체험하였다.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담대하게 사는 기술 즉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면 좋겠다.

한여름의 곤충처럼 짧은 인생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모든 것이 끝나 버린다. 우리는 오감에 의해서 인지되는 당연한 현세에만 너무 갇혀서 살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몸매에 매여 있고 그날의 환경에 갇혀 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매이는데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의 충만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면 요단강 저편에 이르기 전에 이제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도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대격변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죽음을 땅에 있는 그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한다. 멸망이나 멸절이라 하지 않고 즉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장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자신이 잠시 거주하기 위해 그럭저럭 꾸려가던 장막을 접은 정도에 비유하고 있다. 그 이후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기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죽음없이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했지만 그 일은 기꺼이 주님 손에 맡기고 주안에서 죽는 복된 성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 사도는 자신이 입고서 살고 있는 몸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보았다. 장막 깎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바울은 무너지기 쉬운 장막을 인생의 몸으로 비유한 것이다.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쳐도 무너지는 장막처럼 미세한 유독물질이나 하찮은 것이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 깨어질 질 그릇 같은 우리가 계속 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다.

이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에 시달리지 않고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거추장스런 틀이 해체되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알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와 같이 껍질이 그대로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죽음이 이 껍질을 깨트린다. 부화한 헛병아리가 껍질 깨진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집없이 떠돌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준비되어 지체함 없이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무너질 장막집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대저택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살게 될 터이니 몸을 버리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중세기에 악인들이 죽음을 두려워 한 나머지 수도사의 옷을 구입하여 입고 죽었다는 우스꽝스런 이야기가 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집으로 이사 갈 터이니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자.
-한국강로신문 [1325호] 2012년 6월 23일에서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던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오늘 재개됩니다
주일1,2,3부 예배, 오후 찬양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본당 2,3,4층에 입장하신 후에는 ‘예배석’ 표시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제직회가 열립니다
- 교회학교의 부서별 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회는 당분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방역 및 교인 확인 절차
기존과 같이 1층 현관 앞에서 발열 체크 후 교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R코드 교인증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기존과 동일한 교인증이오니 기존 교인증을 찾기 어려운 분들과 미발급 성도들께서는 미리 확인하시고 저장하여 두시면 입장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교인증이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은 수기대장 작성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이용 안내
방역을 위해 운전자는 주차 후, 지하 1층 계단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교인증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하층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하므로 동승한 가족분들은 가능한 주차장 입구에서 모두 하차하셔서 1층 현관 정문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124_sermon.jpg

2021년에 처음으로 드리는 대면 예배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다시 맞이하는 듯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각 가정과 심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선교사 권경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메북(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르산도, 수세리,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뵤도, 보디소포,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성,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이재홍·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교육전도사 김은숙 양하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

■ 고전 6:9-11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를 잘 생각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일들이 있지만 불꽃같은 눈으로 살펴볼 때 공의롭게 판단할 대심판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하시지만 죄인들에게 공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미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견줄만한 이가 이 땅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도 없습니다.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천국에 오고 싶으냐? 그러면 못 오게 될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하나님

본문의9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와 동시에 기쁜 소식을 전해 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니..” 는 이 말씀은 불의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은 특권인들에게 그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를 대산하여 통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며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누리게 특권이지만 동시에 권리이기도 합니다.(롬 8:16-17) 우리는 본질상 선노의 자식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죄목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자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2. 불의한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원망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욕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9-10절) 이런 일에 가담하고 사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에 향한 진실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냉랭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공휼과 동정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나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자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에 빠져 사는 자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의 구원은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공휼을 베풀어 주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본문에 열거된 죄인들도 충분히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맺는 말

자기 나라를 상속받게 할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만유의 주재자이시고 대 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못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질하고 낙담하며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복음 선포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받게 합니다. 복음 전파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사 55: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3(시 72) ...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9(44) ...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6:12-17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그리스도인의 자유 ”...	서정원 목사
* 찬 송 Hymn	313(352)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윤지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 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전 6:12)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7:1 ... 인 도 자
찬 송	368(486) ... 다 함 께
기 도	장창수 집사
성 경	삿 8:1-3 ... 인 도 자
성경통독시상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성도의 말 한 마디” ...	설 교 자
* 찬 송	303(403)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인터넷 영상)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I 부	김미성 권사
성 경	롬 12: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동고동락(同苦同樂)하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모 임

1. 특별제직회 / 찬양예배 후에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립니다.
2. 공동의회 / 다음 주일(1월31일) 찬양예배 후에 예·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 알 림

1. 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어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명의로 신규계좌가 개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예전 사용하던 계좌는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347명	567명	1,914명	428명	1,689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30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

기도할 자리

기도하기 위해 장소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있다. 물론 상달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자리에서 빌어야 한다.

가장 적합한 기도의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순종의 자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만 들으라는 식의 기도는 억지요 기도가 아니다.

상달될 기도가 되려면 회개의 자리에서 빌어야 한다. 아우성을 치거나 미사여구를 늘어 놓는 기도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옷을 찢듯, 마음을 찢으며 죄를 통회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또한 충성의 자리에서 기도하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는 기도라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기 때문이다.

순종과 회개와 충성의 자리에서 비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십시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